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 하느님 말씀을 따라 ”



친애하는 교구민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풍성히 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구는 2000년 대희년을 앞두고 ‘제1차 교구 시노드’를 개최하였으며, 10여 년 전에는 교구 설정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2차 교구 시노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은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맞으며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초대 교구장이셨던 안세화 드망즈 주교님께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도움을 청했던 원의와 정신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은 이 땅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여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기념하는 마지막 해인 ‘치유의 해’에 우리는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고통을 받았으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의 위기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때문에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은혜를 느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세상과 함께 오늘날 교회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영세자가 감소할 뿐 아니라, 주일미사 참여자, 주일학교 학생과 청년들, 그리고 성소지원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반면 냉담신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교회의 어려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때문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부와 정보의 편중, 개인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 계층·세대·지역 간의 갈등과 관계 해체,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역할은 더욱 크게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현실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주의적인 가치관과 문화, 물질의 소유와 성공에 대한 욕망이 지배하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적 가치관으로 이겨내야만 했던 도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복음의 기쁨 5항)할 것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새롭게 살고자 노력한다면 그 “신앙의 기쁨이 더디지만 분명하게”(복음의 기쁨 6항)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구 설정 120주년을 바라보면서 2030년까지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말씀, 친교, 전례, 이웃사랑, 선교**라는 다섯 가지 핵심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며 살기를 제안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아래, 서로가 신뢰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갑니다. 각 대리구와 본당들도 교구의 장기 사목방향에 발맞추어 자신들만의 실천방안과 후속 조치를 찾아 모두 함께 이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2년 동안(2021~2022년)은 ‘**하느님 말씀을 따라**’라는 주제로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어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모든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풍성하게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늘 고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바로 복음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힘과 희망을 얻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신앙과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기본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알아듣는 교육과 양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2년 동안 교구, 대리구, 본당 차원에서 무엇을 실천할지 고민하고, 교우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교대구대교구장 |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 조환길 타대오

대림, 희망의 시기



교구 가정복음화국장 | 박상용 요한 신부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가 깨어있음을 상징한다는 것은 산속에 있는 사찰의 풍경을 보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깨어있음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끊임없이 자신의 틀을 깨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상가인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누구도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시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시간은 방금 전의 시간이 아닌, 매 순간 새롭게 솟아 나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매 순간을 인식하고 현재에만 존재할 수 있음을, 그 현재는 바로 선물임을 인식하는 것이 깨어있음이 아닐까 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전례력으로 대림 시기를 한 해의 시작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곧 전례력을 통해 또다시 새로움을 인식하고, 시간의 거룩함을 인식하도록 늘 깨어있으라고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어야 하는 목적지는 깨달음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깨달음을 촉구하는 많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듣고 깨달으라고 하십니다(마태 24,32; 마르 13,28 참조). 맑은 정신으로 고요히 깨어있다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이 하느님의 섭리임을, 좋은 일뿐 아니라 거부하고 싶은 일까지도 모든 것이 작용하여 선을 이루는 일임을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 일어나는 표징들, 민족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바다와 거센 파도들, 하늘의 세력들(복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느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알이 새가 되어 진짜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껍데기를 깨야 합니다. “흠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된(제2독서) 내적 인간이 되기 위해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물러진”(복음) 외적인 인간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버리고 깨고 나올 수 있을 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심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매 순간 외적 인간의 틀을 깨뜨리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림의 시기는 틀을 깨뜨리고 나와 배려와 존중, 이해와 나눔을 살아가도록 하는 희망을 가르쳐 줍니다. **빛**

한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은총(기쁨)’이란 뜻을 지닌 이름 한나, 기쁨 일도 복된 일도 없이 슬픔에 젖은 모습으로 성경 안에 등장하는 여인. 그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에는 하느님께서 뽑아 세운 임금의 시대가 열린다.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하느님께서 태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남편의 또 다른 아내 프닌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1사무 1,5-6). 한나의 남편 엘카나는 실로에서의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한나를 다그친다. “한나,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만 하오? 당신에게는 내가 아들 열보다 더 낫지 않소?(1사무 1,8)” 언뜻 보기에 아내에 대한 남편의 걱정과 애정을 엿볼 수 있을 듯 하나, 그 방식이 날카롭고 독하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아픔을 다시 한번 후벼파기 때문이다.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나’라는 말은 ‘아들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엘카나에겐 이제 당연시 여겨졌고, 그 당연함으로 괴로운 것이 또한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리하여 한나에게 슬픔은 운명이어야 한다는 억압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나는 억압의 일상을 거부한다. 주님께 간청한다. “만군의 주님, 이 여종의 가련한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아들을 달라고,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노라 다짐하며 간청한다(1사무 1,11). 한나의 청원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것과 그 이스라엘 안에서 억압받던 여인들의 그것들과 많이 닮았다. 한나의 청원은 고통받는 이들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자리를 하느님의 자리로 각인시킨다. 한나의 하느님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구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만군의 주님’이란 호칭은, 그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고통 속 여인만이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호칭인 것이다. 고통 속에 고통을 아는 자에게만 하느님은 만군을 호령하시는 절대적인 권능을 지닌 분이 되신다. 아니, 그러셔야만 한다!

기도하는 한나는 입술만 겨우 달싹거린다(1사무 1,13). 술에 취한 듯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한나를 실로의 사제 엘리는 꾸짖는다. 나는 여기서 사회의 관습과 당위가 또 한 번 한 여인을 억압하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목도한다. 당시의 기도는 크고 높은 목소리로 울려 퍼져야 했다(시편 3,5;4,2;6,9; 다니 6,10-11 참조). 하느님을 찾는 이에게 인간의 방식과 태도를 문제 삼는 건, 고통을 겪는 이에게 ‘이젠 슬퍼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라는 방관자의 태도만큼이나 모질다.

한나의 청원은 당연히 여겨졌던 이 세상의 인식과 관습을 무색케 한다. 사무엘의 탄생으로 답을 얻은 한나는 그녀의 다짐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봉헌한다(1사무 1,27-28). 그리고 곧장 들려지는 한나의 노래.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제 이마가 주님 안에서 높이 들립니다(1사무 2,1).” 그 기쁨의 이유는 오직 하나다.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1사무 2,2).” 어설픈 위로와 핏기 없이 메마른 사회적 관습을 이겨낸 한나의 기쁨은 오직 하느님을 향해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쁨 역시 그러했다(루카 1,46-55). 고통을 아는 만큼 하느님을 알게 된다. 슬픔을 겪는 만큼 기쁨을 노래한다. **필**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1796년 충청도 덕산에서 태어난 정태봉(鄭太奉) 바오로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5촌 당숙의 손에 의해 자라났다. 그는 관명이 '만보'였으나, '태봉'이라는 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다. 1799년경 덕산에서 순교한 정산필 베드로 회장은 그의 사촌이다.

본래 천성이 온순하고 친절하였던 바오로는 고아가 겪어야만 하였던 시련들을 인내와 체념으로 견디어냈다. 전라도 용담 고을로 이주하여 정착하던 때에 이미 바오로는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열심히 교리를 실천해 오고 있었는데 교회 서적을 펴면 끝까지 읽은 다음에야 덮을 정도로 교리를 배우려는 열망이 강하였다. 그러한 사이에 그는 순교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용담에서 거주한 지 3년이 지난 1827년에 정해박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정태봉 바오로는 무모함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숨겼다. 그러나 그가 자주 집에 들른다는 것을 알고 있던 한 밀고자가 모든 사실을 관아에 일러바쳤고, 이내 포졸들이 그의 집으로 들이닥치게 되었다.

용담 관아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은 뒤 전주로 압송된 바오로는 그곳에서의 혹독한 문초에도 교우들을 밀고하거나 배교할 생각을 조금도 갖지 않았고, 이 사실을 깨달은 관장은 그를 옥에 투옥하도록 명령하였다. 이후 바오로는 이일언 읍, 김대권 베드로 등과 함께 12년 동안을 전주 옥에서 생활해야만 하였다. 그동안 그는 세 번이나 자신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을 하면서 한결같이 목숨 건지기를 거부하였다.

바오로가 동료들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게 된 것은 1839년의 기해박해 때였다. 조정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기뻐하면서 천주께 감사를 드렸다. 이때 바오로는 자신의 마음이 심약한 것이 안심이 안되었으므로 처형 때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옥졸들에게 부탁하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 바오로는 동료들과 함께 전주 장터로 끌려 나가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39년 5월 29일(음력 4월 17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43세였다. 사형 판결이 있기 전에 형조에서 임금에게 올린 그의 사형 선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정태봉은 요사하고 황탄한 말에 빠져 이를 깊이 믿었으며, 제사를 폐지하고 지내지 않았으니, 법에 따라 처단하려고 합니다.”



정태봉 바오로
(1796 ~ 1839년)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35. 혼인의 사랑 ④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손하게 행동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거나 엄격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 “실제로, 사랑이 내밀하고 깊어질수록 상대방의 자유를 더욱 존중해 주고,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더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와의 참된 만남에 열려 있으려면 다른 이를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은 너그럽습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하여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성인은 사랑의 찬가에서 사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기 것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사랑받으려는 것보다 사랑하려는 것이 사랑에 맞맞은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사랑의 기쁨』, 99~102항)



“주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JESU UFAM TOBIE)

12.5(일) 오후 5시 범어성당 드망즈홀

유튜브로 생중계되오니
교구민들의 많은 시청바랍니다.



출연: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대구가톨릭여성합창단, 대구가톨릭음악인협회, 대구가톨릭피하모닉오케스트라, 뷔엘레 칸도레스
주최: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대구대교구 평신도위원회 / 주관: 대구가톨릭음악인협회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포장 또는 배달, 장보기 할 때 일회용품 (물티슈, 일회용 집기 등) 거절하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46호 정답

1. 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2. ① 3. ④ 4. 모든 일, 영광, 언제 어디에서나



미사 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9일(월) 10:30 범어성당	3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4일(토) 10:00 월성성당
-----------------	-----------------------	-----------------	----------------------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12.5(일) 9:30
장소: 서울본부(동소문로)
대상: (만)19세~35세
문의: korvocation@columban.or.kr

해독, 효소단식 성경통독 피정

기간: 매월 3,4주 목~일(3박 4일)
장소: 성모솔숲마을
지도: 박상호 요한 신부
문의: (054)373-3955(8:30~18:00)

교육 | 모집 | 기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녀
비신자 포함
담당: 류요한 신부
문의: 650-4442 / (010)6565-6672

남대영기념관 수지에니어그램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수지, 커플수지, 소그룹 피정
일시: 12.11(토) 10:00~17:00
문의: 정이사야수녀, (010)8682-4237

바오로딸 영성프로그램

원데이클래스: 성탄구유만들기

일시: 12.4(토) 14:00~16:00

상설고해소: 매주 화 14:00

장소: 바오로딸 서원

문의: 바오로딸, (010)6681-5185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신약 통독 모임

접수: 수시
대상: 35세 이하 미혼여성
문의: (010)4012-3742

예수회센터 겨울 특강 동영상 녹화 강의

죄와 구원에 관한 오해와 성서학적 진실,
육망! 심리적 돌봄과 영적 성장의 문(門)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kr>

교구청 내 성직자 묘지에 군위 묘원 성직자 묘비석 설치

가톨릭 군위묘원 성직자 묘역에 잠들어 계신 주교님과 신부님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교구청 내 성직자 묘지 벽면에 묘비석을 새겼습니다. 신부님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혼모 돕기 북캘린더 “찬미받으소서” 선착순 한정판매

금액: 10,000원 (100권 이상 단체주문시 20% 할인) 판매: 바오로딸, 바티카노,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053)250-3048~9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파크골프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선수용

초보자 모집/레슨
골프채-국산, 수입산, 홀바, 중고채-매일, 보성판매
골프채세트-교우특별할인

(주)매일프라자
김흥은(요센) 010-9804-8008
유통단지 45 전차관 ☎ 239호

백합식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맛
백합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 본사 053)857-2037
서울 02)2202-8392
대구 053)257-1771

Humasis 휴마시스
코로나19 검사
집에서 간편하게, 결과는 15~20분!

Humasis COVID-19 Home Test

대이네오 MDT
하현태 미카엘
010.5542.6006

※ 본 검사는 PCR 검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영국 비뇨기과
전립선 | 방광 질환
요로결석 (쇄석술)

비뇨기과 전문의인양 이영국(안드레아)
T 053-629-0077
감삼역3번 출구 감삼스퀘어 6층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중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가람소방방재(주)

- 소방시설점검
- 소방안전관리대행
- 종합정밀점검
- 소방관련기술교육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현테크비즈니스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교구 상설고해소(성모당 내) 운영 재개
 재개일: 11.29(대림1주간 월)부터
 시간: 매주 월~금 15:00~16:00
 대상: 월 - 성직자와 수도자에 한함
 화~금 - 일반신자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선배(요한) 신부
1933년 12월 1일

행사 | 모임

코로나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미사
 일시: 11.29(월) 11:00, 장소: 성모당
 주례: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10회 8090밥콘서트
 전석 2만원 / 유튜브 밥밴드TV 생중계
 일시: 12.5(일) 17:00

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문의: (010)2521-6870 / (010)9577-7819

12월 예비신학교 방학미사

일시: 12.12(일) 14:00
 대상: 1~5대리구 모든 예비신학생
 (학부모님도 오실 수 있습니다.)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성당

교육 | 모임

월배성당 대림 9일 기도, 특강
 기간: 12.6(월)~16(목)

장소: 월배성당 성전
 문의: 월배성당 사무실,
636-1302

대구가톨릭음악원 전공반 모집
 분야: 오르간, 성악, 지휘, 시편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성(합창교실/성가교실): 월, 화, 목, 금
 성인 피아노교실(디지털): 화, 금, 토
 CEO합창단: 수 19:00(가곡과 합창)
 장소: 감삼동 평생교육원(용산역 5분)
 문의: (010)3512-1565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 모집
 전입학설명회: 12.4(토) 14:00
 겨울진학캠프: 2022.1.8(토)~9(일)
 대상: 현 초6, 중1
 문의: (054)338-0530

대구대교구 배드민턴 연합회 회원 모집
 일시: 매주 주일 14:00~18:00
 장소: 대구광역시 청소년 수련원
 대상: 천주교 신자 누구나
 초보자부터 선수까지 함께 어울려 운동
 문의: 김안드레아, (010)2600-2846

성령봉사회 봉사자 모집
 기간: 12.4(토)~5(일)
 12.11(토)~12(일)
 장소: 고령 월막 피정의 집
 대상: 모든 교우

문의: (054)954-3091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3기생 모집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509-9748

채용 | 안내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
<http://www.sungsam21.com>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정순(안젤라)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칠곡가톨릭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에서 6대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
 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320-2061
<http://www.tcmch.co.kr>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 덕 영** (스테파노)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www.theopen-daegu.co.kr **환절! 출출하게 허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무릎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경일신경과·내과의원
 전문의 : 신경과 7인/내과 5인/영상의 1인
 • 뇌졸중(중풍) · 치매 조기진단
 •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 MRI · CT · 공단검진(위/대장)
 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번출구(홈플러스 대당점 맞은편)

목,허리,어깨,무릎 통증치료전문
서울에이스통증의학과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전문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목 / 허리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염 / 스포츠 손상
 원장 권 일 치(안드레아)
 진료과목 :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동구 아양로 46 [신일동 214-4] 2층 Tel. 053-954-7582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
T. (053)752-9797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묘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 원 장 이 동 구 (마티아)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주사 10대이상 완비
 ▶ 유튜브 "개일남" 채널 운영
 ▶ **특화진료**
 -정형외과
 -심장내과
 -건강검진
 -고양이특화
 -아간염급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280-5 (이마트 감삼점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루카) 053-571-0075